

해외현장연구 개인별 에세이

일본 방문 GOING-AJOU호
202021543 e-비즈니스학과 조혜민

1. 해외현장연구 참가 목적

해외현장연구는 내게 있어 부족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래에 IT 역량, 글로벌 역량을 두루 갖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특히, 일본의 디지털 전환(DX)과 IT 인프라 구축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가졌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국제학부에서 일본지역연구 전공을 복수전공하고, 제 2 외국어로 일본어를 학습하며 제1 전공 이외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학술적인 대화를 통해 소통할 기회를 가지기는 어려웠다. 지금까지 일본을 관광의 목적으로 방문했고, 관광에 있어서는 일본어 소통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학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보고서를 읽으며 해외현장연구 과목이 주제 선정부터 자료 수집, 현장 조사 등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외국어 학습이나 전공 지식으로는 쌓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판단했다.

국제학부 과목인 ‘일본 산업과 기업’을 수강하며 버블 붕괴 이후의 불황 지속과 일본의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있는 만큼 기존에도 일본의 IT 기업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IT 기업 메루카리(Mercari)에 관심을 가졌고, 당시 일본 산업과 기업 과목 수강 당시에도 메루카리를 선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외현장연구에서는 당시 단편적으로 수행했던 조사와 분석을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주제를 구상하여 해외현장연구 과목을 신청하게 되었다.

해외현장연구를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과목이 팀 프로젝트 과목이고,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활동이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과 일본어 회화 실력이 걱정되어 신청을 주저하기도 했다. 또한, 4학년이 되어 복수전공과 취업 준비 활동으로 인해 일정이 적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외현장연구 참가를 통해 알고 개선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더 열심히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을 확정 짓게 되었다.

2. 해외 현장 연구 일정

1) 출국 전 주요 활동

-학기 중 활동

해외현장연구 프로그램에서 한 학기 동안 연구할 주제는 팀원 분들과 논의하여 선정했는데, 사전에 구상해온 주제가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로 채택되었다.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고, 팀원분들도 연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결정 내릴 수 있었다.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는 주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여 수행했고, 기말고사 이후에는 일본 현지 일정 확정과 보고서 작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활동을 진행했다.

-일본 내 일정 계획

이번 해외 현장 연구에서 GOING-AJOU호 팀은 일본의 리유즈 시장(중고거래 시장)을 연구했다. 따라서 사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초기에는 일본 기업에 직접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러나 기업 측

과 연락이 닿기가 어려웠고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답변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쉽지 않았다. 대신 일본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리거나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협업 활동과 관련해 시설 견학과 인터뷰를 요청했다. 또한,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약하는 등 대안을 찾아 현지 방문 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메일을 보냈고,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정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수차례의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를 성사시켰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 또한, 비즈니스 메일을 이전에 보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연락 예절과 비즈니스 메일 작성법을 숙지하며 새로운 부분을 공부할 수 있었다. 바쁘신 와중 메일을 확인해주신 많은 관계자 분께 감사함을 느꼈다. 그렇게 일본 관련으로는 최종적으로 게이오주쿠 상학부 야마모토 히카루 교수님 인터뷰(메일로 진행), 에코플라자 요가 시설 견학 및 인터뷰, 신주쿠 리사이클 센터 견학 및 인터뷰, 신주쿠 마루이 본점 메루카리 스테이션 예약, 미조노구치 마루이 메루카리 스테이션 예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세타가야구 에코플라자 요가 관계자와의 메일

-호텔, 교통 수단, e-sim 예약

일본 방문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인 세가지는 팀원들과 다른 조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며 결정했다. 호텔은 도쿄 시티뷰 호텔 타바타로 결정되었고(agoda 이용), 공항에서 호텔을 오가는 교통 수단은 스카이 라이너로 결정했다(klook 이용). 호텔과 교통 수단을 알아볼 때는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거리와 걸리는 시간, 숙박비 등을 고려해 알아보았고 팀원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내렸다. 현지에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e-sim도 사전에 구매했다.

도쿄 시티 뷰 호텔 다바타 스테이션 (TOKYO CITY VIEW HOTEL TABATA-STATION)
 ★★★★★
 東京シティービューホテル

 Chome-24-22 Tabata, Kita City, Tokyo, 도쿄 / 동경, 일본
 東京, 日本
[숙소 위치 확인](#)



체크인	체크아웃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15:00 이후)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11:00 이전)

예약번호: BNZ243301 예약날짜: 2023년 6월 15일

 **도쿄 게이세이 스카이라이너 티켓**
 대표 여행자: CHO HYEMIN
 패키지: 나리타 · 우에노/닛포리
 사용날짜: 2023년 6월 22일
 수량: 5 x 성인

[예약 관리하기](#)
[고객센터에 문의하기](#)

구매확정완료 ✕

 06. 08. 결제
 일본 eSIM 데이터 무제한 유심 e심 이심 도시락eSIM
22,100원 
[주문상세>](#) [도시락유심 문의>](#)

[리뷰쓰기](#) [재구매](#) [...](#)

2) 1일차 (6월 22일) - 출국

일본 출국 일정은 기말고사 일정 바로 다음날이었고, 비행기는 9시 출발 예정이었기에 이른 새벽부터 일정이 시작되었다. 교수님, 팀원분들과 만나 사전에 준비해둔 대로 출국부터 일본 입국, 숙소 도착까지 문제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비행기와 숙소에서는 틈틈이 일본어의 경어 공부를 했다. 평소에 일본어 중 경어를 유독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시설 방문 시 폐를 끼치거나 실례가 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외

동서 사형법		동서 사형법	
いる	있다	いらっしゃる	계시다
行く	가다	いらっしゃる	가시다
来る	오다	おいっしゃる	오시다
見る	보다	ご覧になる	보시다
言う	말하다	おっしゃる	말씀하시다
食べる	먹다	召し上がる	드시다
飲む	마시다	上がる	주무시다
睡る	자다	お休みになる	취하다
する	하다	なさる	하시다
くれる	주다	くださる	주시다
~ている	~하고 있다	~ていらっしゃる	~하고 계시다
知っている	알고 있다	ご存じ	알고 계시다
知る	알다	お話しになる	말씀하시다
忘る	잊다	お忘れ	잊다
氣に入る	마음에 들다	お気にします	마음에 드시다
お聞き	알다	聞きが あります	알다

[illegible]

- 5 -



두 번째 일정은 세타가야구 내 에코플라자 요가에서의 시설 견학과 인터뷰였다. 기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기에 걱정이 많은 상태로 방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관을 방문하자 약 6명의 직원분이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자기소개하며 맞이해 주셨고 기관의 시설 견학과 인터뷰에 함께 해주셨다.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맞이해주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진지하고 예의를 갖추어 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분들이 시설 견학과 설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셔서 궁금했던 점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고,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시설 곳곳을 방문하면서 환경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확인했고 지자체의 환경 기관과 기업의 협력 관계가 생각 이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놀라웠다. 시설 내 소식지와 활동 내용 등 다양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준비해주셔서 이를 읽으며 시설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다.



리유즈 학습 코너



대형 불필요품 수거 창고



리유즈 코너



준비해주신 자료



0엔 코너

(물건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0엔 코너에서 하나를 골라가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셔서 사진 속 분홍색 인형을 받았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일본의 환경 활동은 한국에 비해서 나아가고 있는 쪽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편인가요?’라고 질문해주셨는데, 확실히 일본이 나아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예상치 못했다며 기뻐하셨다. 또한, 당일치기 방문인지를 물어봐주셔서 5박 6일 가량의 방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단하다고 말해주시며 연구를 위해 연락하고 먼 곳까지 방문까지 해주어서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전했고,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렸을 때도 기뻐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다.



에코플라자 요가 앞에서 직원 분들과 함께 찍은 사진

4) 3일차 (6월 24일) - 가와사키시 지모티 스팟, 메루카리 스테이션

가와사키시 지모티 스팟에서는 메루카리 스테이션에서 출품에 활용할 중고 의류품을 구매했다. 가와사키시 지모티 스팟에는 가전 제품이 많은 편이었고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어 한국에도 있었다면 신품 구입보다 먼저 고려할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미조노구치 마루이 메루카리 스테이션은 미조노구치 지역에서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백화점의 모습은 한국의 아울렛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가게들이 진열되어있는 가운데 강습을 진행하는 메루카리 스테이션이 있는 것이 색다른기도 했고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지나가는 백화점 이용객분들도 이를 신기하게 쳐다보거나 현장에서 직원분께 강좌 신청을 상담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일본 번호를 하나밖에 구할 수 없었기에 메루카리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한 핸드폰이 하나 뿐이었는데, 4명에서 함께 들어도 가능하다고 승인해주셔서 무사히 강좌 수강이 가능했다. 메루카리에 출품할 물건 촬영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게재할 때 가격, 카테고리, 배송법, 물건 상태 등을 기재하는 법, 물건이 팔릴 때 배송을 하는 법, 결제 대금을 관리하는 법 등 메루카리 사용에 필수적인 절차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셨다. 딱딱한 방식이 아닌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의 강습이었다. 배송 방법과 요금이 무게와 포장 박스 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자신이 출품한 상품에 맞는 것을 고르고 편의점이나 우체국에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이 배송비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지만 배송 절차는 일본 쪽이 간편하다고 생각되었다.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사용법을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다고 생각해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기에 한국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강습 수강 현장



강습을 통해 출품한 물품 화면

5) 4일차 (6월 25일) -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 신주쿠 마루이 본점 메루카리 스테이션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의 방문 목적은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일본의 환경 기관’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연구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리유즈 기업들은 지자체 환경 기관들과 협업하여 3R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 환경 기관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운영은 정부 기관인지 민간 운영인지 궁금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는 에코플라자 요가와 같이 리유즈 기업이 수탁 운영을 진행하는 환경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기관이다. 그러나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 견학과 인터뷰는 일본의 3R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 과정에서 언급되는 일본 환경 기관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아가 지모티가 세타가야구 환경 기관(에코플라자 요가)을 수탁 운영하게 된 바와 같이 다른 환경 기관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시설을 방문하자 먼저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3R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는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는데, ‘아주대학교 국제학부’를 적어두고 맞이해주셨다. 센터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통신지, 자료 등을 4명 모두에게 제공해주셨다. 일본어의 속도는 괜찮은지, 자료는 읽기 쉬운지 등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다.



강의 이후에는 시설 견학을 해주셔서 센터의 곳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센터에서는 헌 우산으로 가방 만들기, 헌 옷으로 컵 받침 만들기 등 같은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전시해두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다. 3R 관련 활동은 에코플라자 요가와 유사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 빗물 처리장, 지열 발전 등 더 다양한 시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주쿠에서는 ‘녹색(みどり)’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센터 외벽이 식물로 덮여 있는 등 특색이 있다는 점도 하나하나 설명해주셨다.



센터 내 강습 홍보



센터 옥상의 태양광 패널



건물 외벽의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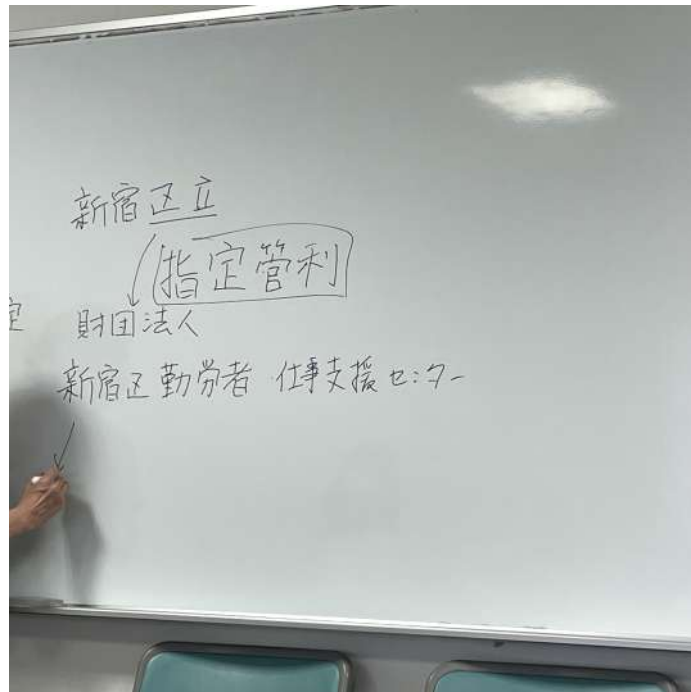
학습 코너



리유즈 코너

강의와 시설 견학은 모두 나카무라 아키코(中村 明子)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 한국의 환경 정책이나 활동의 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말씀해주셔서 한국의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기관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한국에서 준비해 온 선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견학과 인터뷰 일정을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를 포함한 다수의 일본의 환경 기관들은 구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구가 직접 환경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재단 법인에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이 많다고 언급하셨다.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의 경우 공익 재단 법인 신주쿠구 근로자, 업무 지원 센터가 지정 관리자로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는 한국과 달리 환경 기관이 지역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 환경 기관의 운영 주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신주쿠 리사이클 활동 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다음으로는 신주쿠 마루이 본점 리사이클 센터에 방문했다. 미조노구치 방문 당시와 같은 강좌를 수강해 내용은 거의 같았지만, 강사에 따라 설명하는 방법이나 강습의 분위기에는 차이가 있었다. 메루카리 스테이션은 강습 수강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어 1회성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출품과 판매 등을 달성한 뒤 메루카리 스테이션을 방문해 스탬프를 받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1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을 독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메루카리 신규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쿠폰을 배부해 홍보를 독려하기도 했다.



수강자에게 배부하는 쿠폰



参加後 アンケートのご案内

QRコードを
スマートフォンで読み
取ってください



新信本館

① 受講者アンケートをタッチ



② 確認完了するまでタッチ



③ アンケートをタッチ



【講師番号】

今日の先生を 数字で入力	あいさ 315	キキ 363	ハニー 782	サリー 413
-----------------	---------	--------	---------	---------

④ 受講者アンケートをタッチ

※画面の一番下のほうにあります。
ここをタッチ

●受講者アンケート

数字?	おひ
1237	362

【会場ナンバー】 241

【出品ページ作成
ワークシット】

開催：令和2年6月29日(土)日

※当日の会場では配布されませんので、事前にダウンロードして持参してください。
※当日の会場では配布されませんので、事前にダウンロードして持参してください。
※当日の会場では配布されませんので、事前にダウンロードして持参してください。

【メルカリ出品復習動画】

教室参加者特典

お家で動画を観ながら
出品チャレンジ！→



<

ご参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みんなの
メルカリ
教室

ご参加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参加後アンケートのお願い

より良いサービス提供のため、アンケートへのご協力をお願いしております。皆さまのご意見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実店舗】ご参加の方

基本情報

※本情報は社内での分析用に取得させていただきます。

【講師番号】今回受講した講師番号を入力してください。番号は担当講師からお聞きください。

※頭に「0」を付けずに講師番号をご入力ください/
講師番号が不明時は999を入力してください

363

【会場ナンバー】会場ナンバーを入力してください。番号は担当講師からお聞きください。

※頭に「0」を付けずに拠点番号をご入力ください/
会場ナンバーが不明時は999を入力してください

241

- 15 -

6) 5일차 (6월 26일) - 일본 팀 전체 회식, 팀 회의

5일차에는 교수님, 후리가나 팀과 모여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서 연구 활동을 격려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해주셨다. 다른 조 분들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고, 팀원 분들과 어떻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할지 논의했다.

요코하마와 우에노의 백화점에도 들어갔는데, 메루카리 스테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쿄 내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백화점 내에는 메루카리 스테이션이 설치된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에노 마루이 메루카리 스테이션



요코하마 마루이 메루카리 스테이션

3. 해외현장연구 참가 후기

이번 해외현장연구 과목에서는 초기에 신청한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수행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해나간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기에 값진 경험이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함께 연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며 연구 방향성을 찾아나갈 때 보람을 느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구 보고서 작성을 맡아 평소의 학기보다 많은 양의 글쓰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점검할 당시 다른 조의 팀원 분들과 교수님께 글의 가독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후 글을 쓸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글쓰기 습관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다른 과목의 글쓰기를 할 때도 이러한 피드백들이 도움이 되었다.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매주 진행되는 피드백 시간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신 경우가 있었기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유익했다. 시설 견학과 인터뷰의 경우 많은 인터뷰 일정을 확보한 후리가나 팀의 요령과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메일을 보내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팀에서 일본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자료 조사, 비즈니스 메일 전송, 인터뷰 진행, 현지 조사 등의 과정에서 일본어 실력도 늘었다. 부족했던 소통 경험도 현지 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쌓을 수 있었다.

설정된 연구 주제는 현지 조사와 연구를 진행할수록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기에 연구 주제를 더 좁혀서 진행해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지모티의 환경 기관 수탁 운영’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일본 리유즈 기업의 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연구해보고 싶다.

미래에 일본에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현장 연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일본 시장의 현황 파악은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일본으로의 취업이라는 목표가 좀 더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가능성, 고령화 등과 같은 현대 사회의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 막연한 어려움을 느꼈는데,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견해가 넓어져 다른 이에게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해외현장연구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은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느꼈다. 일본이나 대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거나 해당 국가들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는 학우분들께 해외현장연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